

주말경제

Economy

■60대부부, 안전한 노후생활 대책?

치매·장기간병 대비 '실버보험' 들어야

Q 지난해까지 세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고 부부만의 오붓한 노후생활을 시작한 6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10여년전에 구입한 상가건물 임대소득으로 다소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낡아 손이 많이 가고 관리인을 쓰자니 인건비가 만만찮은데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직접 수리하는 일도 버겁습니다. 현재와 같은 소득을 올리면서 좀 더 편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수익 향후 불안정... 처분하는 게 좋아
5억 정도는 즉시연금보험·펀드에 분산 가입해야

A 이씨는 현재 60대 중반 부부답게 상당한 순자산과 대졸이 전무한 우수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산구조가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어 국내 부동산 흐름에 따라 가장 중요한 시기인 노후에 처치 커다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 일변도의 자산구조를 좀 더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다양하게 분산시키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버보험 상품 가입부터**=기본적으로 불입이 끝난 몇몇 보장성 보험상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노후만을 위한 의료비 관련 보험상품을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갈수록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노후 또한 부부만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실버의료비 즉, 치매, 장기간병 등 간병비용을 위주로 한 보험상품에 가입해 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현재 시중 K보험사의 실버케어상품의 경우 부부가 함께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약 17만원이면 장기간병비용과 관련한 기본 보장은 받을 수 있으니 전문 설계사와 상의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할 것을 권한다.

◇**상가는 처분하고 아파트는 줄여라**=노후 자산운용의 가장 기본은 안전성이다. 투자에서의 안전성은 원금의 손실이 없는 운용을 의미한다. 현재 보유중인 자산은 전체가 부동산으로써 안전성이나 수익성면에서 노후를 위한 자산으로는 다소 부적합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관련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어느 정도 대체로 자리잡을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또한 평균 1.08명이라는 최근 출산율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머지않은 미래에 급격한 인구감소가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싶다.

따라서 현재 보유중인 노후화 된 상가건물은 노령으로서의 관리상 문제점, 기준시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증가 등 여러모로 판단해 볼 경우 매각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현재 거주중인 50평형대의 아파트는 부부만 생활하는 주택으로는 너무 넓다는 생각이 든다. 30평형 규모로 축소할 경우 관리비 절감, 보유세 절감 등 여러가지 유익한 점이 있으므로 거주 용도로써의 주택의 개념만으로 활용 용도를 축소해 작은 평수로 옮길 것을 권하고 싶다.

이렇게 두가지 절차를 거치면 약 5억3천만원의 노후자금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후자금 중 3억원은 시중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자. 즉시연금보험이란 가입과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공시이율과 수령기간에 따라 연금지급액이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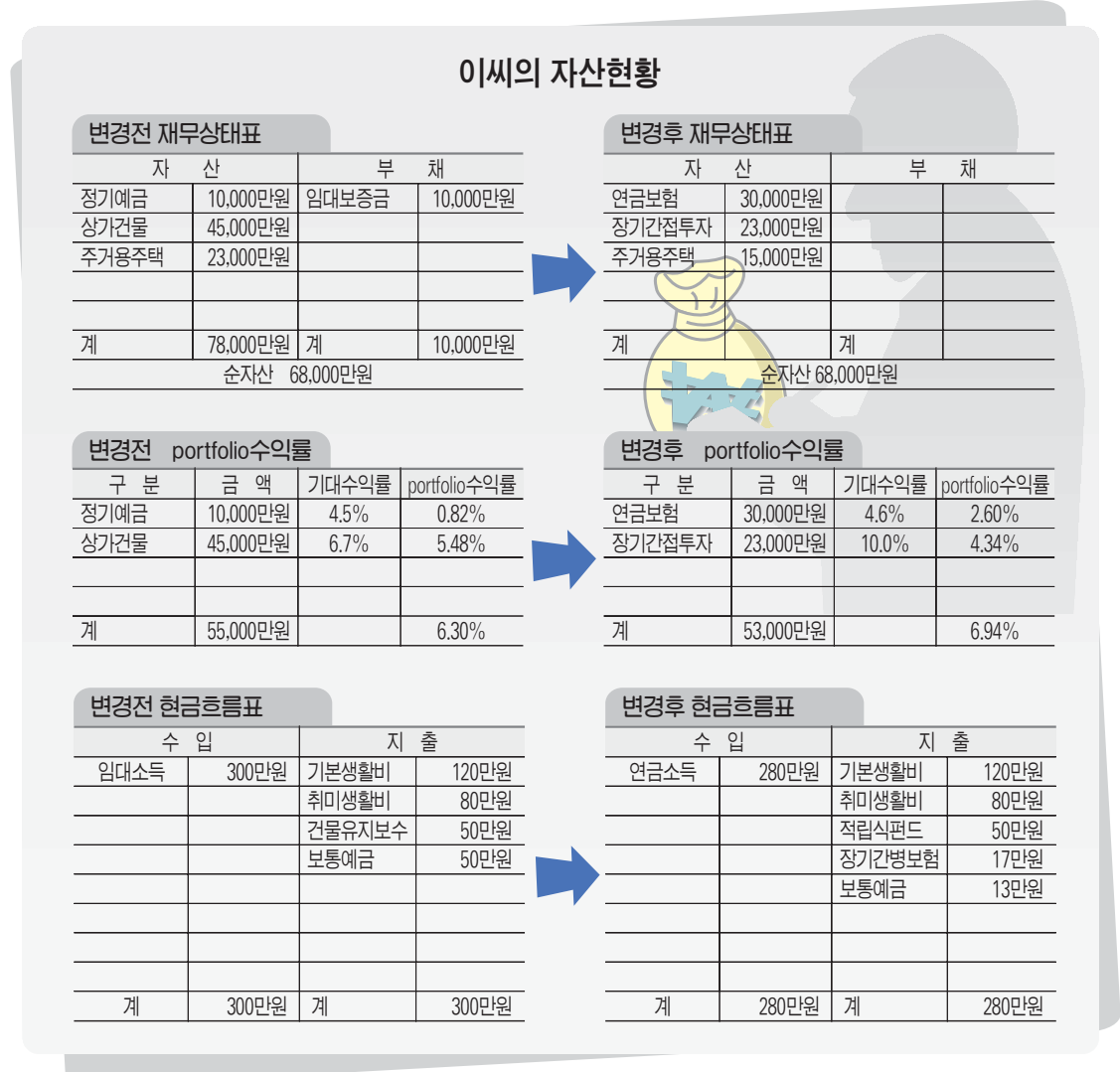
즉시연금보험 가입액 3억원의 연금형태를 10년 확정형으로 선택해 수령하게 되면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월평균 280만원~290만원은 받을 수 있다.

이는 명목적으로는 현재 월 임대소득액 300만원보다는 적지만 각종 세금 및 유지보수비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수입이 될 것이다. 단, 단점은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이 지나면 3억원은 자동 소멸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0년 이후의 노후를 위해서 나머지 2억3천만원은 우량펀드를 선택해 10년간 장기투자로 묶어두었다가 연금수령이 끝나는 10년 뒤에 재차 배수자를 주 피보험자로 하는 즉시연금에 가입하거나 그때 상황에 맞춰 최적의 상품을 나름대로 활용한다면 노후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노후설계의 절대원칙은 안전성이었다. 하지만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증가해 갈수록 노후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감안할 경우 과거 절대원칙이었던 안전성은 오히려 위험한 자산운용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기본 원칙인 안전성과 장기투자를 통한 적절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만이 가나히 노후를 윤택하게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은퇴준비는 빠를수록 좋다**=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조기퇴직, 부실한 공적 연금으로 개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이 커져가고



은퇴생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1. 노후에는 생활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에도 은퇴 전 생활비의 60~80%가 소요된다.
2.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으로 기초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나날이 감소하고 있고 퇴직금 제도도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
3. 국민건강보험으로 노후 의료비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다.
-노인인구의 수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본인 부담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4. 은퇴생활 위해 저축할 시간이 아직 많다.
-빨리 준비할수록 더 적은 부담으로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다.
5. 적은 금액의 저축은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적지만 몇 십년 후에는 큰 자금이 된다.

당신이 안락한 노후를 맞이할 것인가, 고단한 노후를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오늘 결정된다. 조기에 은퇴를 준비하면 불필요하고 심각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정리=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이번주 재테크 자문단>



이규호CFP (광주은행)



최혜영CFP (교보생명)



안병인AFPK (메트라이프생명)

◇이번주 상담자 : 이규호CFP(광주은행), 최혜영CFP(교보생명), 안병인AFPK(메트라이프생명)
◇재산 리모델링 신청방법(신청서 연락처 기재)
▲이메일을 통한 신청방법 : chy69016@naver.com, bungy@kwangju.co.kr
▲팩스를 통한 신청방법 : 062)524-4187, 062)222-4918
▲'다음카페'를 통한 신청방법 : www.cafe.daum.net/fpforum(광주FP포럼)

대한민국 선거사상 최초로 선거정보에 활용할 수 있는
휴대폰문자발송 자동프로그램
한 번에 **1000개** 발송!

승리의 저틀킴
선거정보에 대한 모든 것

선거정보를 좀 더 빨리 얻기 위해
승리하는 저틀킴을 찾아주세요!

- 1. 시간 제한 24시간
- 2. 1000개 문자발송 / 1000명까지
- 3. 1000개 문자 / 1000명까지
- 4. 1000개 문자 / 1000명까지
- 5. 1000개 문자 / 1000명까지
- 6. 1000개 문자 / 1000명까지

새총메트라이프
광주·전남지사 한솔에드빌
Tel. 062-381-7702, 381-5055
H.P. 010-4610-0193

www.party-food.co.kr
파티외식산업

출장뷔페 · 도시락납품 · 위탁급식

- 회갑, 칠순, 팔순 잔치, 병원개원식
- 상당, 교회 결혼식 음식, 장년회급식
- 제업식, 기념식

파티외식산업

- 시와 시내 출장전문
- 체육대회, 아이유회
- 시와 시외 무료지원
- 연회할 주차장 편비

당일전화 062-226-0005-7